



제목	The Armies of Ancient Persia: The Sassanians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Pen and Sword
발행일	2017. 10. 17.
저자	Kaveh Farrokh
출판국가	영국
페이지수	504
ISBN 또는 ISSN	978-1848848450

내용 요약

이 책은 고대 세계에서 초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군대 조직, 전략과 전술, 공성 기술, 무구 등에 대한 글이다. 페르시아 언어와 고고학적 식견이 높은 저자가 최근의 분석과 고고학적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사산제국의 군사력에 대해 영어로 접근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글을 서술하였다. 7세기 이슬람 정복 때까지 로마의 가장 무서운 경쟁국은 페르시아였다. 그러나 로마의 군대와 비교할 때 페르시아 군대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접근한 이 책에 군사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226년 파르티아를 축출한 사산조 페르시아는 중무장 카타락트 기병대와 재빠른 기마궁수를 결합한 파르티아의 유명한 전술을 지속하였고, 전투 코끼리를 대거 사용하였다. 이런 전술에 더하여 저자는 보병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저자에 따르면, 사산조 군대에 대해 중장기병과 기마궁수의 전투력을 강조하다보니 보병의 중요성이 과소평가되어 왔는데, 실제로 전장에서 보병이 승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사산제국의 붕괴와 아랍족의 이슬람의 정복에 대해서도 기존과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기존에는 아랍족의 강력한 군사력이 사산제국을 빠르게 점령한 것으로 보았으나 저자는 아랍족의 거센 침입에도 사산제국이 오랫동안 굳건하게 방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다른 많은 내부적인 요인들이 페르시아 군대의 패배를 가져왔다. 이후 페르시아인들은 아랍인에 대해 문화적 저항 전쟁을 시작했고, 이는 어느 정도 성공하여 자신들의 언어를 고수하였고, 아랍인에게 문화적 영향을 끼쳤다.